

머리커튼 친 입양모...“정인이, 불쌍한 생각 안들더라” 증언

‘정인이’ 입양부모 본격 공판...증언 신문

어린이집 원장·홀트 사회복지사 등 출석

정인이 학대 추정 시기 회상하며 ‘오열’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입양부모의 재판이 열린 17일,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홀트 소속 사회복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정인의 학대 피해와 관련된 증언을 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형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2-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

이집 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어린이집은 정인이가 입양된 후 다닌 곳이다.

정인이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에 입학했다고 한다. A씨는 당시 정인의 모습에 대해 “쾌활하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예쁘고 항상 밝은 아이였다”고 떠올렸다.

정인이 학대 의심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 접수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때 A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잊지 못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해 5월 아침에 담임이 저를 불렀다. 가서 확인했더니 다리에 멍이 들어왔다. 배

에도 상처가 나서 왔고, 항상 얼굴이나 윗부분에 상처가 많다가 아랫부분에 멍이 들어 많이 놀랐다”고 했다.

검찰은 “정인인과 비슷한 연령의 아이들이 허벅지에 멍이 들고, 배에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A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A씨는 정인이가 사망하기 하루 전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를 진술하며 오열했다.

A씨는 “손과 발이 너무 차가웠다”며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정인이가 다리를 떠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아기가 아무것도 안 먹고, 많이 말랐는데 배가 불록 나왔을까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날은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이었다. 과자를 쥐도 입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홀트 아동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약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동안 거의 내내 눈물을 흘려가며 증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장씨와 ‘정인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통화했던 사실을 진술하며 오열했다.

장씨는 B씨와의 통화에서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제대로 먹지 않는다.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장씨는 이때 양손으로 이마 부위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고개를 떨쳤다.

구속 기소돼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장씨는 머리를 움켜쥐는 모습 외에는 계속해서 머리를 늘어뜨린채 얼굴을 가렸다. 일명 ‘머리 커튼’을 한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평상복을 입은 입양부 C씨도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을 앞두고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증인들은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일반 방청객 참여 없이 공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앞두고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습을 하고 있다.

광주시 “노래연습장 술·도우미? 즉시 법적 조치”

광주시가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풀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할 경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부터 영업시간 금지 조치가 해제된 노래연습장들을 대

상으로 5개 자치구,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주류 판매나 도우미 알선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2개반 12명이 투입된다.

노래연습장과 유사한 형태인 ‘뮤비방’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지역 노래연습장은 1081곳, 뮤비방은 94곳에 이른다. 시 방역당국은 또 PC방 1078곳, 게임장과 오락실 246곳, 멀티DVD방 19곳에 대해서도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불법 행위는 없는지 현미경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뇌물 받고 절도사건 덮어줘 파면된 경찰관, 집행유예

사건 무마 대가로 돈 건넨 공기업 직원 겸 노래방 업주도 징역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7일 수회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자 동전 노래방 업주인 B씨에게

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 모 동전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 원을 받고, 관련 공문을 허위 작성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의 지갑을 훔쳐간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며 사건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강요,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경찰 직무 배제 뒤 파면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 작성했고, 증거 인멸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정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3년간 음식물 조리 중 화재 300건 넘어

외출하거나 TV, 전화통화 등 대부분 안전수칙 미준수

최근 3년 간 광주지역에서 음식물 조리 도중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313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모두 11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액도 3억6000만 원에 달했다.

울 들어서도 지난 15일까지 전체 화재 104건 중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조리 중 화재가 10건(10%)에 달했다.

음식물 화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

조리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골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놓은 채 잠을 자는 경우, TV를 보거나 전화통화를 오래하다 화재로 이어진 사례, 외출로 집을 비우는 경우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